한성대신문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760-4186
발 행 인 이상한 **편집인겸주간** 나은미
편집국장 이주형
디 자 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1976년 12월 15일 창간 | blog.naver.com/hansungnews | 2018년 3월 5일 월요일 제531호



2018학년도 새내기새로배움터 성황리에 마쳐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새내기새로배움터(이하 새터)가 열렸다. 첫날 행사는 ▲개회식 ▲안전 교육 ▲홍보대사 '하랑' 및 SNS팀 '한성이' 소개 ▲중앙운영위원회 소개 ▲확대운영위원회 소개 ▲조별 프로그램 진행 ▲동아리 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송진기(기계 4) 총학생회장은 "회장단이 새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 많이 기대해 주기를 바란다"며 본격적인 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튿날은 ▲단과대 행사 및 학과 행사 ▲단과대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및 응원전 등 새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요 행사로 꾸며졌다. 단과대 레크리에이션에 참석한 나유지(인문 2) 학생은 "재학생과 신입생이 처음 만나는 큰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챙김을 받던 1학년에서 챙겨주는 2학년이 되어 다시 새터에 와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새터 참석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는 "작년 새터에 비해 이번에는 단과대끼리 갖는 시간이 많아서 신입생과 재학생이 더 친해질 수 있었다"고 새터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행사에 참석한 신입생들도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은정(무용 1) 학생은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선배들도 친근하게 대해줘서 뜻깊었다"고 말했다. 또, 김종준(상상력 1) 학생도 "새터 준비 기간이 기존보다 짧았다고 들었다. 급하게 준비한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로써 개강 전 개최된 2018학년도 신입생 행사가 모두 끝났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앞으로 진행될 행사들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3월부터 교육장학금 지원 비율 감소돼

3월부터 교육장학금 지원 비율이 감소한다. 교육장학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취업지원팀은 지난 1월 29일,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용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3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변경된 사항은 3월 2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단, 토익이나 HSK와 같은 어학 시험,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전액 지원하며, 교내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용도 전액 감면해준다.

대학본부는 교육장학금 지원 비율 감축을 결정하는데 등록금 수익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달 공개된 대학평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교내 장학금이 감소된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학생대표의 질문에 조윤철(경영기획팀) 팀장은 "정원 축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장학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우리학교 2018학년도 자금예산서와 2017학년도 자금예산서를 비교·분석해 보니, 올해 교육장학금 부문에 할당된 예산은 약 6억 원으로, 작년 7억 2000만 원보다 16%(약 1억 2000만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회계 부문 수입도 전년에 약 563억 47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약 543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약 19억 8000만 원) 정도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신지영(경영기획팀) 담당자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장학금 예산은 인건비,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수입의 감소가 재정악화로 이어진 것 역시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신지영 담당자는 "우리학교는 현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서 인출해 쓰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0년에 기금이 고갈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각 부문의 지출을 20% 정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예산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학생 복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20%대로 유지하면서 감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20%를 기준으로 삼은 근거에 대해서는 "서울 소재 대학의 평균 수치가 19% 정도인데, 이보다 높은 20%로 잡고 감축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장학금 비율 감축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 모 학생은 "시험 응시 비용을 100% 지원해준다니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으며, 최 모 학생은 이와 반대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총 지원 금액	100만 원	현행 유지	1학년 30만 원, 2학년 50만 원
교내 프로그램	100%	현행 유지	
응시료	100%	현행 유지	
외부 프로그램	50% 지원	30% 지원	교육비 기준

※2017월 3월 1일~2018년 2월 28일 해당 교육비는 현행대로 50%를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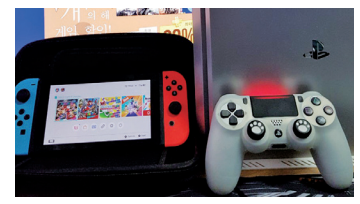
지면안내

보도 02
트랙제도, 시행 1년 만에 안정찾나



사회 03
최저임금 인상이 몰고 온 후폭풍

문화 04
어서오세요! 콘솔게임의 세계에



사람人 05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건강한 회사



학술 06
잠만 '잘' 자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

오피니언 07
의화정, 삼학송 등

광고 08
제45기 수습기자 모집

기자사령

임
부국장 김수현(인문 2)

면
부국장 유은강(영어영문 3)
정기자 장동화(행정 2)
박아름(패션 2)

hansungnews
한성대신문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트랙제도, 시행 1년 만에 안정찾나



▲ 학사지원팀이 학사공지에 게시한 수강신청 시뮬레이션 영상을 시청하는 17학번 학생

우리대학의 주요사업인 '트랙제도'가 시행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작년에 처음 도입된 트랙제도는 수차례 진통을 겪으며 수정·보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논란이 일었던 트랙 수강신청과 관련해 올해에는 여러 가지가 개선됐다.

먼저, 작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트랙 설치학부 소속 학생 수강신청 우선권'이 확립됐다. 18학번 신입생 수강신청 당일, 초반 2시간 동안 학생이 소속된 단과대학에 설치된 트랙기초 강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새로 출범한 33대 총학생회 '참'이 출마 당시 내세운 공약을 이행한 결과다.

한편, 일부 트랙은 17학번 트랙필수 강의 주·야 교차신청을 수강신청 당일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예술학부의 ▲동양화 ▲서양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트랙과 ICT디자인학부의 ▲뉴미디어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 ▲제품·서비스디자인 ▲패키지·브랜드디자인 ▲인테리어·코디디자인 ▲VMD·전시디자인 ▲게임일러스트레이션 트랙 등 주간, 야간 중 한 쪽에만 강의가 개설된 트랙들이었다. 본래 주간 소속 학생이 야간에 개설된 강의를 수강신청하려면, 수강신청 2차 정정 기간 중 교차 정정 기간에만 가능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외에도 트랙필수 강의는 주간, 야간 분반 외에 주·야 합반을 추가로 개설했다. 제1트랙과 제2트랙 강의 시간이 겹쳐 학생들이 트랙필수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주·야 합반 수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1트랙 트랙필수 강의와 제2트랙 트랙필수 강의의 수강시간이 중복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주·야 합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시간표를 출력해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학사지원팀은 수강신청 매뉴얼과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해 학사공지에 게시했다. 17학번 학생들은 제1트랙과 제2트랙 수강신청을 따로 해야 전공 학점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됐다. 예를 들어, 트랙선택을 제1트랙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제2트랙 전공 강의를 신청하면, 해당 과목은 전공이 아닌 일반선택 과목으로 신청되는 것이다. 이에 학사지원팀은 수강신청 시뮬레이션 영상을 올려 수강신청 당일,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왔다. 이와 더불어 학사지원팀은 본 수강신청 이후, 수강신청 1차 정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트랙필수 강의 수강신청 모니터링 결과를 각 트랙에 전달했다. 트랙필수는 해당 트랙을 선택한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강의이므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 인원을 파악하고, 분반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수강신청 때마다 학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이하 낙메)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 수강신청 관련 불만글이 다수 게시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 수강신청 기간에는 예년에 비해 반응이 잠잠했다. 학사지원팀에 건의된 수강신청 민원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염정훈(학사지원팀) 팀원은 "학사공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해 학생의 의문을 사전에 충족했다"고 그 전말을 밝혔다. 또한 그는 "수강신청 책자를 수정할 때는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학생들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짜별로 정리했고, 학생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를 알렸다. 또한, 학사공지에 학번별 수강신청 특이사항을 정리해 혼돈을 줄였다"며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

학사지원팀은 수강신청 초기부터 낙메에 올라온 사이버강의 거래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삭제·경고 조치하는 등 부정거래를 일체 차단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이에 더해 지난 2일부터는 서면신청 헬프데크스를, 5일부터는 전자출결 헬프데스크를 상상관 및 탐구관 1층 로비에 마련한다. 이곳에서는 오는 9일 예정된 서면 신청을 대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입생에게 전자출결 이용법을 안내하는데 더해, 전자출결 관련 오류 발생 시 후속 조치를 도울 계획이다.

모든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수강신청 2차 정정과 서면 신청만을 남긴 현재, 우리학교가 매학기 반복해 온 '수강신청 잔혹기'를 완전히 이겨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한성학원 설립자 이희순 여사 소천

학교법인 한성학원 설립자이자 한성대학교 학장을 역임한 이희순 여사가 지난 달 20일 오전 7시 55분에 소천했다. 향년 97세다.

고인은 1945년 한성학원을 설립한 후, 1958년부터 1977년까지 한성학원 제2대 이사장에 취임한 것을 시작으로, 제6대 이사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 이후 1987년까지 10년 동안 한성대학교 제2대 학장을 맡았으며, 2010년부터 다시 5년간 이사장 직을 역임했다. 그 뒤로는 지금까지 한성학원 이사로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영결식은 지난 달 23일 오전 7시 한성대 미래관 DLC에서 열렸다. 영결식은 개식사, 고인에 대한 묵념, 설립자 약력 보고, 추도사, 조사, 예배, 생전영상 상영, 헌화,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성학원 이종훈 이사장이 추도문을 읊었고, 우리학교 이병은(영어영문학부) 교수가 고인을 추념했다. 예배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박종길 목사가 진행했으며, 예배는 찬송가, 성경말씀, 설교,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꾸려졌으며, 장지는 공주군 탄천면 선영이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한성 #타임라인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2월 20일,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낙산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학위수여식은 예년과 다르게 학부, 대학원으로 나누어 열렸다. 학부 졸업생은 오전 11시 행사에, 대학원 졸업생은 오후 2시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훈 이사장과 이상한 총장을 비롯한 교내 인사들과 외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학위수여식은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학사 보고, 학위증서 및 상장 수여, 이사장 축사, 총장 격려사, 총동문회장 축사, 교가 제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명예박사 1명, 박사 34명, 석사 187명, 학부 950명,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91명, 총 1,263명이 이날 학위를 받았다. 성적우수자, 공로자를 위한 수여식도 있었다.

학부에서는 ▲성적우수상 24명 ▲학과 추천 공로대상자 69명 ▲특별공로상 25명 ▲동문회장상 2명 ▲우리은행장상 1명 등 총 121명이 수상했다.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에서는 ▲학사학위과정 성적최우수상 1명이 상을 받았다. 대학원에서는 ▲최우수논문상 8명 ▲성적우수상 23명 ▲공로상 24명 ▲특별공로상 3명 ▲대학원 총동문회장상 2명 등 총 60명이 수상했다.

이상한 총장은 이 자리에서 "졸업생의 노력에 가족, 교수, 선후배 모두의 배려와 사랑이 더해져 오늘 학위를 받게 된 것"이라며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비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학술정보관 제2기 서포터즈 모집

학술정보관이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9일까지 '제2기 학술정보관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서포터즈는 학술정보관 블로그·페이스북 콘텐츠를 작성하고,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술정보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보조하고, 개인 SNS를 통한 홍보도 겸한다.

이번 서포터즈는 총 4명을 선발하며, 휴학생을 제외한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3월 19일부터 2019년 1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학기마다 1인당 40만 원의 장학금과 비교과 포인트 50pt를 받게 된다.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게시물을 통해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게시물에 기입된 메일주소로 전송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곽동화(학술정보관) 담당자는 "서포터즈를 통해 학술정보관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학술정보관을 이용해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학생역량개발시스템 명칭 'HOPE' 확정

교육혁신지원팀은 지난 달 14일부터 18일까지 학생역량개발시스템 명칭을 공모했다. 본 공모에는 총 35명의 학생이 53개 작품을 제출했다. 교육혁신지원팀은 그중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을 각각 선발했으며, 대상 수상작으로 'HOPE'를 선정했다. 'HOPE'는 'Hansung, the Opportunity of Potentiality Enhancement'의 약자로 '잠재력 향상의 기회, 한성대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창의적 상상력으로 꿈을 꾸며 성장하자는 의미의 '상상드림', 한성대학교를 통해 쌓은 나의 이야기라는 뜻의 'HI-Story(Hansung & I Story)'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는 "당선되어 기쁘다. 학생들이 희망찬 마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달시키기를 바란다"며 당선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상 수상자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5만 원권이,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만 원권, 1만 원권이 부상으로 지급됐다.

학생역량개발시스템은 현재 우리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이력관리 시스템을 대체할 e-포트폴리오 시스템이다. 교육혁신지원팀은 앞으로 HOPE를 통해 진로 설계, 취업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상담 지원 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동정란

노광현(IT공과대학) 교수
노 교수는 지난 2월 8일에 열린 '한국사물인터넷협회 2018년 정기총회'에서 사물인터넷 인력양성 기반 마련을 통한 산업발전에 대한 공헌으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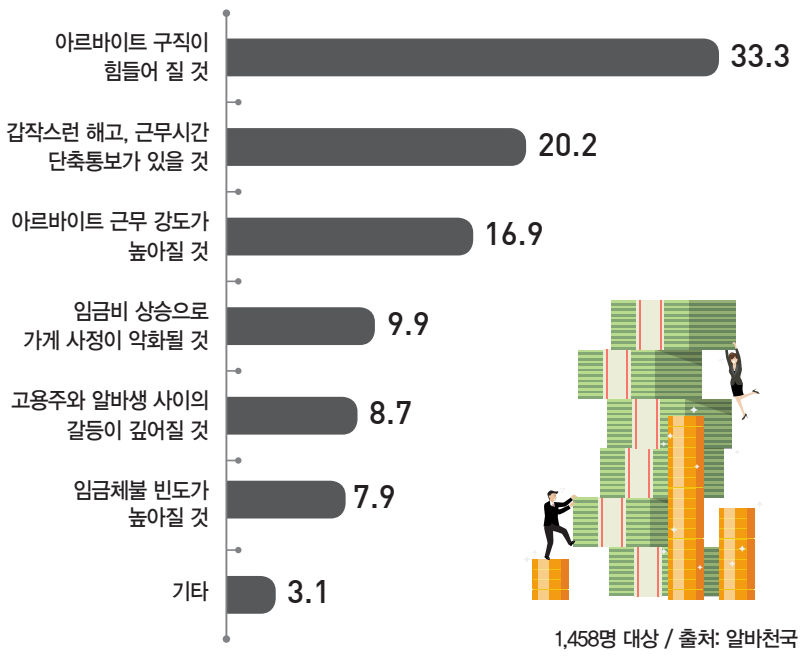
이충진(기초교양교육과정) 교수
이 교수는 지난 1월 한국칸트학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몰고 온 후폭풍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높은 인상폭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할 것으로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가계 소득여건이 개선되어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취업자 수 또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소득이 증가해 내수 촉진·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2달이 흐른 지금, 관계기관의 예상과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적용됨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은? (단위: %)



1,458명 대상 / 출처: 알바천국

외식물가 도미노 상승

프랜차이즈 업계는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브웨이'는 지난 달 1일부터 샌드위치 17개 제품의 가격을 최대 6.7% 인상했으며, '커피빈' 역시 지난 달 1일부터 커피 등 일부 음료 가격을 최대 6%가량 인상했다. 이에 여타 외식업종도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전망이다.

한편,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곳도 있다. 이 모 씨(22, 여)는 "졸업 기념으로 가족들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 무료로 제공되던 식전 빵이 유료로 바뀌어 당황스러웠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무료 서비스가 줄어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한, 배달 대행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배달 대행 수수료를 올리면서, 일부 대형 치킨프랜차이즈는 무료로 제공하던 치킨무와 음료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각종 편법에 소득은 오히려 감소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각종 편법, 즉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있다. 사업자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모두 편법에 속한다. 실제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 모 씨(22, 여)는 "최저시급이 오르고 나서 근무 시간이 주 23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줄어든 셈"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했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2017년 2학기 동계방학부터 근로시급이 최저임금에 맞춰 시간당 7,000원에서 7,600원으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라 행정부서 20시간, 학과사무실 17시간이었던 주당 근로시간이 행정부서와 학과사무실 모두 15시간으로 변경되었다. 1인당 수혜 근로장학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고, 노동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한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의 기대와는 달리, 첫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알바천국에서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72%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구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답변이 33.3%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용심리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싼 각종 우려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상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편법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외에도 카드수수료 부담 추가 완화,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갈등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총 지수	1.0	0.4
생활물가지수	0.9	0.5
라면	1.7	0.5
설렁탕	4.1	1.0
자장면	4.2	1.0
식품 이외	1.1	0.3

2018년 1월 기준 소비자 물가조사 (단위: %)

출처: 통계청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국가장학금 개선방안 발표, '반값등록금' 실현되나

지난 2월 6일 교육부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이하 국가장학금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가장학금 계획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보다 499억 원 증액된 3조 68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가장학금 계획은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국민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소득 구간 체계 개편,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등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번 국가장학금 계획은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한 수혜 예측성 제고 ▲대학생 근로자 소득 공제액 확대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방식 개선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학생 여건 고려한 지원 확대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작년에 52만 명이었던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올해는 약 6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분위 4구간 해당자에게 286만 원, 5구간 해당자에게 168만 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4구간 390만 원, 5·6구간 368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반값 수준으로, 중산층 지원을 늘린다는 취지를 반영한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 금액이 매년 달라져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 금액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구간별 지원 금액을 재구조화시켜 앞으로 대학생들이 장학금 수혜 금액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와 함께 대학생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의 지출 비용을 현실화해 대학생 근로자의 소득 공제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작년까지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첫째, 둘째는 소득구간에 맞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 셋째부터 다자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 자녀라면, 첫째, 둘째도(88년생 이후) 국가장학금이 아닌 다자녀장학금을 받게 된다. 기초·차상위 계층부터 3구간까지는 1인당 연간 520만 원, 4~8구간은 1인당 연간 45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7년 대비 12만 명이 추가로 다자녀가구 혜택을 받게 된다.

대학별 지원금 차등 지급,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이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 지원금에 대학 자체 장학금 예산을 더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지금까지 저소득층 학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대학에게 같은 금액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 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즉, 저소득층 학생 수가 많은 대학에 한국장학재단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다. 장애 학생의 경우,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계획 개선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 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구간 재구조화 및 지원단가 비교표

2017년		
구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단가(만 원)
기초 · 차상위	자격기준	520
1구간	30%	520
2구간	70%	520
3구간	90%	390
4구간	110%	286
5구간	130%	168
6구간	155%	120
7구간	180%	67.5
8구간	220%	67.5
9구간	290%	–
10구간	291%↑	–

2018년		
구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단가(만 원)
기초 · 차상위	자격기준	520
1구간	30%	520
2구간	50%	520
3구간	70%	520
4구간	90%	390
5구간	100%	368
6구간	120%	368
7구간	150%	120
8구간	200%	67.5
9구간	300%	–
10구간	301%↑	–

▲ 변경된 소득구간 기준표. 전체적으로 금액이 인상됐고, 구간별로 지원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출처: 교육부)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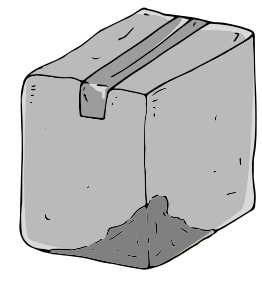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배송 중 훼손된 물품 보상받고 싶어요

최근 홍초의 매력에 푹 빠진 김 기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홍초 한 박스를 주문했다. 홍초가 든 택배를 수령한 김 기자는 택배의 상태를 목도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택배상자는 흉물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고, 상자 안에 있는 홍초 병들도 모조리 찌그러져 있었다. 심지어 홍초가 샜는지 병이 끈적끈적하기까지 했다. 과연 김 기자는 찌그러진 홍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훼손된 택배를 보상받길 원한다면 파손된 상태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택배 수령 당시 파손 상태를 촬영해둬야 추후 증거로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택배회사나 택배기사가 물건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성실히 임한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송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즉, 부주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고객이 아니라 택배회사 쪽에 있는 것이다.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택배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훼손 사실을 택배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한다. 따라서 물품 훼손 사실을 인지했다면, 택배회사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것이 좋다.



택배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 파손된 물건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는 운송장에 상품 가격이 기재돼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달라진다. 운송장에 상품 가격을 기재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고객이 운송장에 택배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한도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택배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고객이 지불한 택배 비용도 반환받을 수 있다.

택배회사가 원만한 배상을 거부한다면 외부 공적기관에 배상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뒤, 그 절차에 따라 배상받는 것이다. 소비자원의 합의 유도와 권고마저 수용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기만 하면 해당 내용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소송 또는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보상받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김 기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홍초 한 박스를 모두 다른 병에 옮겨 담는 고생을 해야만 했다. 결국 훼손된 홍초에 대한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했고, 결국 김 기자는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보상은 택배회사 선에서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파손된 택배를 받는 즉시 망설이지 말고 택배회사에 통지해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쟁취하길 바란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어서오세요! 콘솔게임의 세계에



PC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게임을 해도 왠지 모르게 심심하다. 하루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어도 어쩐지 허전하다.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나와 놀아줄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더 이상 500원 짜리 동전을 짤랑대며 오락실로 향하고 싶지 않다면 주목하자. 콘솔게임만 있다면 이불 속에 누워, 모니터 앞에 앉아 당신의 일상을 빵빵하게 채울 수 있다.

콘솔의 'ㅋ'자도 모른다면

콘솔게임은 오락실에서 즐기는 아케이드 게임이나 PC로 즐기는 온라인 게임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조이스틱(Joystick)'이나 '조이패드(Joypad)' 등의 전용 컨트롤러를 디스플레이에 연결시켜 플레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콘솔기기로는 닌텐도의 '위(Wii)',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Xbox)', 소니엔터테인먼트의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등이 있다.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콘솔기기는 아마 '슈퍼컴보이(슈퍼패미컴)' 혹은 '슈퍼겜보이(슈퍼알라딘보이)'일 것이다. 서커스, 팩맨, 소닉…. 이런 게임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의 엄지손가락이 움찔거린다면, 당신은 더 이상 콘솔게임 세계의 초행자가 아니다.



▲ 1990년 일본에서 발매된 슈퍼패미컴. 국내에는 1992년 '슈퍼컴보이'로 발매 됨

게임기는 애들 장난감 아니냐고요?

마니아들에게 '게임의 성지'라 불리는 유명 게임숍 '한우리'에서 만난 박건주(24, 남) 씨. 그는 군 제대 이후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콘솔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4'와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했다. 그는 "수준 높은 그래픽과 탄탄한 스토리가 콘솔게임의 매력"이라며 콘솔게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가 게임기기와 게임소프트웨어를 사러 이곳을 방문한 것만 해도 벌써 네 번째. 그는 "기대작이 발매될 때면 항상 사람들로 북적인다.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게임기가 애들 장난감이면, 나는 아직 어린 애다. 우리아빠도 마찬가지"라며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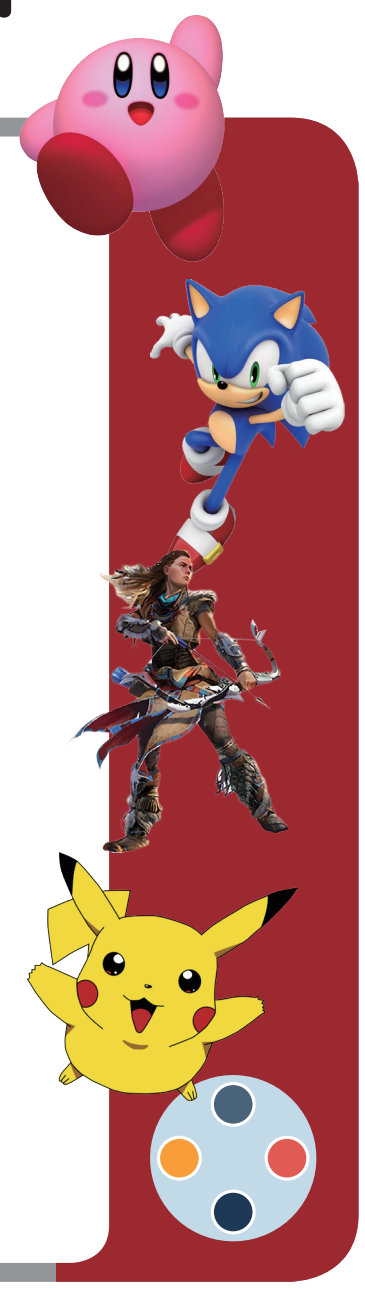
▲ 박 씨가 보내준 사진. 닌텐도 스위치(좌)와 플레이스테이션 4(우)

나누면 배가 되는 기쁨

콘솔게임은 이불 속에 파묻혀 혼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불 밖으로 나와 여럿이 모일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 최대 8개의 닌텐도 스위치를 로컬 통신으로 연결해 플레이할 수 있다. 다른 유저와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플레이스테이션4'도 본체에 최대 4개의 컨트롤러를 연결할 수 있다. 기존의 1~2인용 콘솔게임보다 다수의 유저가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한 게임이 증가하는 추세다.

게임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게 됐다. 콘솔게임은 우리 기억 속에 자리 잡아 우리의 일상을 채워주고 있다. 콘솔게임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은 당신을 위해 박 기자의 추천 게임과 다양한 컨트롤러의 종류를 이어서 소개하겠다.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박 기자의 추천 게임



게임 〈젤다의 전설 :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대응 기종 닌텐도 스위치
장르 액션/어드벤처
내용 멸망한 왕국에서 모든 기억을 잃은 채로 눈을 뜬 주인공 '링크'의 오픈 에어 어드벤처.
특징 30년 째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최신작. 게임 매체들이 뽑은 '2017 올해의 게임(Game of the year, GOTY)' 최다 선정작이다.
후기 "발매 전부터 국내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던 작품! 젤다의 전설 하나만으로도 닌텐도 스위치를 살 이유는 충분하다."
"링크와 함께라면 74,800원쯤이야 ^_^. 텅장이라도 행복해♥"



게임 〈몬스터헌터 : 월드〉
대응 기종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
장르 액션
내용 지형 · 환경생물 · 몬스터 생태계 등을 활용해 즐기는 몬스터 사냥.
특징 "이 게임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4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 각종 게임 판매 사이트 1위를 석권했다.
후기 "새롭게 도입된 다양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게임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감히 〈몬스터헌터〉 시리즈 중 최고라고 단언한다."
"나를 집돌이로 만들어준 게임. 술보다 좋다."
"빨리 재입고 안 해주면 옷 더럽힌다~"



게임 〈언틸 던〉
대응 기종 플레이스테이션4
장르 호러/어드벤처
내용 고립된 산장에서 다가오는 위협. 플레이어의 선택이 생사를 결정짓는다.
특징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엔딩은 100여 개가 넘는다. 다양한 공포 소재, 깜짝 놀랄만큼 잔인한 장면 연출이 매력적이다.
후기 "다시 플레이해도 지루하지 않은 스토리와 나비효과가 불러오는 영화같은 시나리오가 좋았다."
"무서워서 꿈에 나올까 무섭다. 엄마랑 같이 자야지"
"주인공 전원을 살리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실행한 게임! 애들아 죽지마ㅠㅠ."

등짝스매싱을 부르는 콘솔게임 컨트롤러



생생한 레이싱 게임을 위해

기본 컨트롤러를 이용한 레이싱 게임이 질리기 시작한다면, 레이싱 휠·기어 쉬프트·레이싱 패달 등을 장착해 사용해 보자. 레이싱 전용 의자에 진동 스피커까지 갖추면 그곳은 이미 레이싱 트랙 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집중력 높은 스포츠 게임을 위해

콘솔게임이라고 하면 흔히 액션, 아케이드 게임을 떠올리지만, 골프·양궁·탁구·검도 등 스포츠 게임도 많다. 이에 따라 골프채, 양궁 활, 탁구채, 검 모양의 게임 액세서리도 출시됐는데, 여기에 컨트롤러를 장착해 플레이하면 실제로 스포츠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조준력 향상을 위해

소니는 오직 '총 게임'만을 위한 컨트롤러를 발매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다. 여태까지 당신의 형편없는 조준력을 기본 컨트롤러 탓으로만 돌렸다면, 슈팅게임에 특화된 컨트롤러를 사용해 당신의 미친 실력을 뽐내보자.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건강한 회사



건강한형제들 박준수 대표

지난 2017년 12월 28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6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가 2016년 '학생창업 기업매출' 1위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133개 대학에서 978개 학생 창업기업이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우리학교는 학생 창업기업 매출 15억 3000만 원으로 1위에 올랐다.

우리학교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동문 박준수 대표(경제 06)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한형제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 기업은 건형 스쿼트 기구, 건형 철봉 등의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기반 쇼핑몰이다. 2016년 창업한 '건강한형제들'은 개점 1년 만에 부산 롯데백화점에 오프라인 매점을 개장하는 등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4월에는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국제 피트니스 박람회(FIBO)에 생산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박람회 준비와 사업 확장 등으로 연일 분주한 박 대표를 만나 성장 비결을 들었다.

군 복무 기간이 버리는 시간이라고?

박 대표는 '건강한형제들'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정부는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 중 만 39세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벤처캠퍼스(이하 벤처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벤처캠퍼스에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1억 원 상당의 지원금과 맞춤형 교육, 전문가 멘토링, 기본 시설(사무공간, 휴게실) 등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8개월 간 받을 수 있다.

박 대표는 우리학교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정보를 입수했지만, 벤처캠퍼스에 합격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서류 전형을 거쳐 세 차례의 면접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 그는 모든 과정을 거쳐 벤처캠퍼스 대상자로 합격하는데 군 복무 시절 쌓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군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군에서 작전장교를 맡아 정부 공문서를 많이 다룬 덕분에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써야 만족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이 벤처캠퍼스 서류전형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면접과정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라고 말했다. 흔히 남들이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군 복무 기간을 그는 창업의 밑거름으로 활용한 셈이다.

오직 고객을 위해 발품을 팔다

또 하나 박 대표를 가로막았던 것은 제조업체 선정 과정이었다. 당시 그는 '최고의 품질'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고 있었다. 여러 업체가 제품 샘플 제작해왔지만, 번번이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그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업체에서는 품질을 낮추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자는 제안을 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혹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품을 팔았다. 마침내 자신의 요구를 100%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았고,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단순히 이윤 창출만 추구했다면 그 업체와 계약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기업을 찾아다닌 것입니다"라고 회고했다.

반려견과 함께 출근할 수 있는 회사

박 대표는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 고객의 만족을 중시하듯, 기업을 운영할 때는 직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 먼저 업무상 직급은 존재하지만, 직원들이 서로를 부를 때는 직급 없이 'OOO 씨'라고 부른다. 회의할 때도 대표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대신, 직원들이 직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 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고, 사무실에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있게 하는 등 직원 편의도 고려하고 있다. 이 모든 것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가치관이 녹아있다. 박 대표는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 "창업하기 전 물류 회사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경직된 기업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제게도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라고 당시를 돌아봤다. 그래서 박 대표는 자신이 창업하면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행히 공동창업자도 그와 뜻을 같이해, 그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다.

창업지원센터에 가지 않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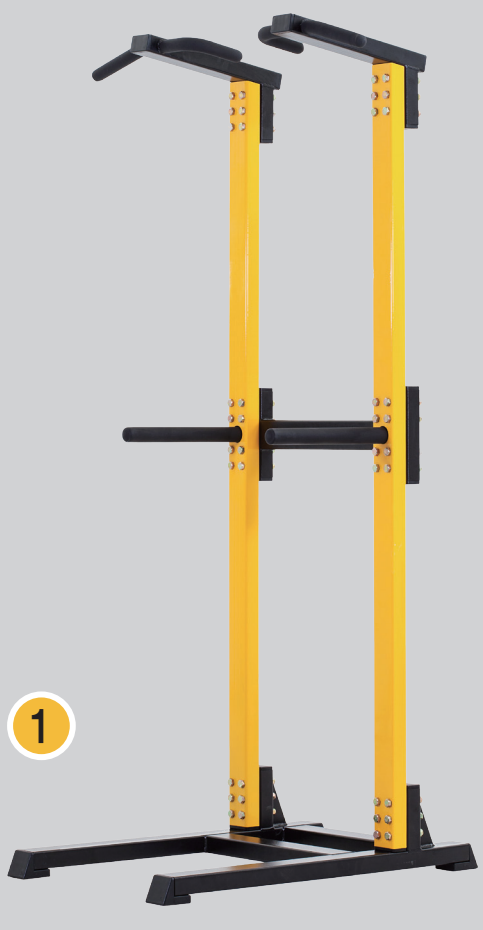
그는 독자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일단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창업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어떤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영어 공부나 독서 등 자신에게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시작하라"고 전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중용〉에 나오듯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의 삶이 그의 말을 대변한다. 그가 만약 우리학교 창업지원센터를 찾지 않았다면 벤처캠퍼스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벤처캠퍼스를 알지 못했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거니와 스타트업의 개념조차 알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결국 그가 오늘날의 '건강한형제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창업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린 작은 일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박 대표는 오는 4월, 독일 박람회 참가를 기점으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유럽과 북미 등 해외 시장에서는 저가의 중국산 운동기구들이 '이베이'나 '타오바오'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납품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디자인을 무기로 진출한다면 세계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건강한형제들'의 앞날을 기대해 본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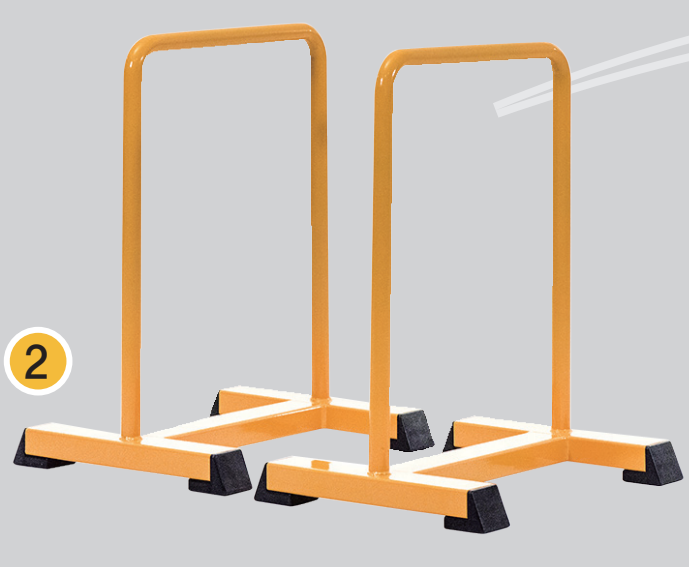
건강한형제들의 대표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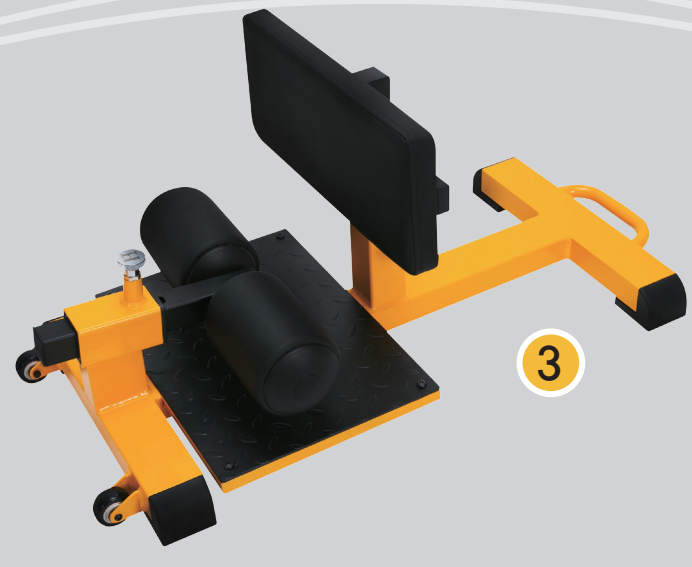


1 건형 철봉. 60kg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와 제품 하단의 고무 홀더로 흔들림을 최소화했다. 손잡이 역할을 해주는 풀업바(Pull-up bar)를 손에 착 감기는 크기로 제작해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다. 볼트와 너트의 크기를 통일시켜 조립이 간편한 것도 특징이다.

2 건형 딥스바(Dips-bar). 팔굽혀펴기나 L-sit(평행봉을 손으로 잡고 몸을 L자로 만든 후 일정 시간 버티는 동작)와 같은 맨손운동을 할 때 팔을 지지해주기 위해 제작됐다. 고무 홀더로 제품을 고정시켜 운동할 때 안정감을 준다.

3 건형 스쿼트기구. '건강한형제들'의 주력 상품이다. 발목과 무릎을 받쳐줘 스쿼트를 할 때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준다. 제품 밑에 바퀴가 내장돼 어디로든 쉽게 옮길 수 있다. 22.5kg의 무게감이 더해져 뒤로 넘어갈 염려 없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





잠만 '잘' 자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

당신은 '잘' 자고 있는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잘 자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인생의 4분의 1에 달하는 시간 동안 잠을 잔다. 그만큼 잠은 인간의 삶에 있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인은 여러 가지 문제로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있다. 어젯밤, 당신의 잠은 어땠나? 혹시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나? 충분히 잤는데도 낮 시간 동안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혹여나 평소 코를 곤다는 말을 자주 듣지는 않은지 한 번 생각해보자.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수면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

'수면장애'라고 하면 가장 먼저 불면증을 떠올리기 쉽다. 불면증이란 말 그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잠들지 못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잠에서 자주 깨는 것, 너무 일찍 잠에서 깨는 것도 불면증의 증상이다. 불면증은 이러한 증상의 지속 기간에 따라 다시 '일과성 불면증'과 '만성 불면증'으로 구분된다. 일과성 불면증은 시험이나 이별 등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잠에 들지 못하는 단기성 불면증이다. 반면,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만성 불면증은 다른 질병에서 기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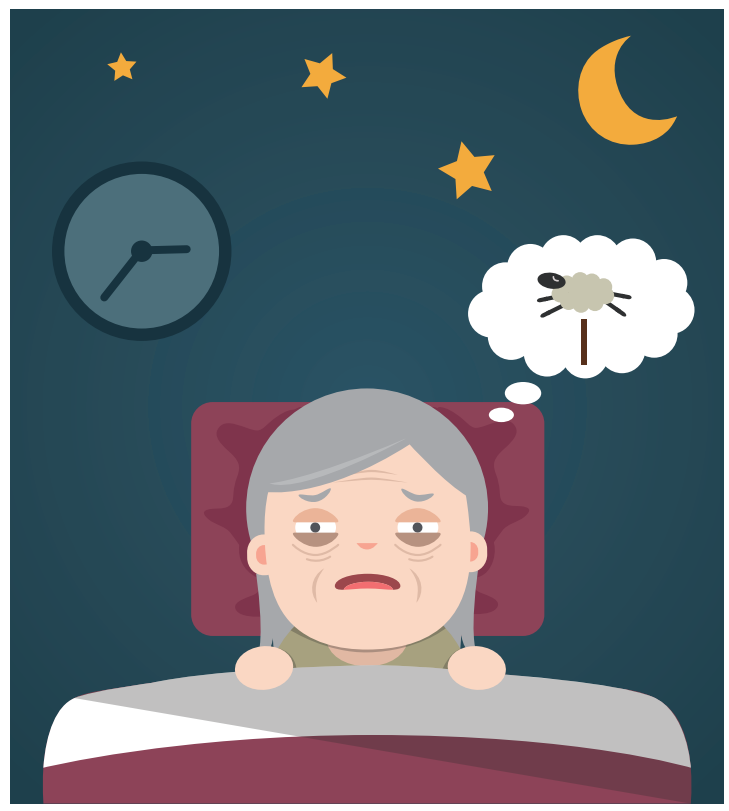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은 자지 않으면서 누워만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말고 침실에서 벗어나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또, 잠이 오지 않을 때 시간을 확인하면서 빨리 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은데, 그렇게 대처하면 오히려 압박감을 느껴 더 잠들지 못하게 되므로 가급적 시간을 확인하지 않도록 한다.

잠들지 못해서 괴로운 증상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잠이 너무 많아 고통을 받는 증상도 있다. 바로 '기면증'이다. 다른 말로 '과수면증'이나 '주간 졸림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면증을 앓는 사람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져 심각한 문제를 겪는다. 이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거나, '육체만 깨어 있고 정신은 잠들어 있는 것 같다'고 호소한다.

이 증상은 신체가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자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도 기면증을 앓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불면증과 마찬가지로 다른 수면장애나 기타 질병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기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충분히 잠을 자고,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을 규칙적으로 해 수면패턴을 고정하는 것이 좋다. 낮 동안 밖에서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기면증 증상이 지속된다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수면다원검사란 수면장애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다. 병원에서 하룻밤 잠을 자면서 뇌파검사, 안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심전도 검사, 비디오 촬영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

잠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잠 자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수면무호흡증'이 그렇다. 수면무호흡증이란 말 그대로 잠을 자면서 숨을 쉬지 못하는 증상이다.



우리에게는 코골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코를 곤다고 해서 무조건 수면무호흡증을 앓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를 고는 사람의 70%는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비만이다. 목에 지방이 쌓이거나 혀, 편도 등이 비대한 경우에는 기도가 좁아져서 코골이는 물론 수면무호흡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 질환은 턱이 평균보다 작거나 목이 짧고 굵은 사람에게도 많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정석훈(대한수면학회) 이사는 "보통 수면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외과에서 치료한다. 하지만 수면무호흡증은 이비인후과, 내과 심지어 치과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면무호흡증 치료에는 무엇보다 체중감량이 중요한데,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만 갖추어도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모름지기 수면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법이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것,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 정상적으로 자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습관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볍게 생각한 증상 하나가 또 다른 증상을 불러와 결국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수면장애를 누구나 겪는 증상이려니 하며 가벼이 여기지 말고 치료한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바이오 에너지의 새싹을 틔우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때부터 에너지 소비는 시작된다. 물을 데우려면 LPG가스를 써야하니 말이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또 어떤가? 지하철만 해도 막대한 양의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핸드폰, 컴퓨터를 비롯한 온갖 전자제품, 더위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사용하는 냉·난방기, 요리할 때 쓰는 가스레인지까지. 일일이 의식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매일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와 같은 에너지는 석유와 석탄을 필두로 한 화석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한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런 에너지원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각에서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을 발굴해 대체에너지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에너지(Bioenergy)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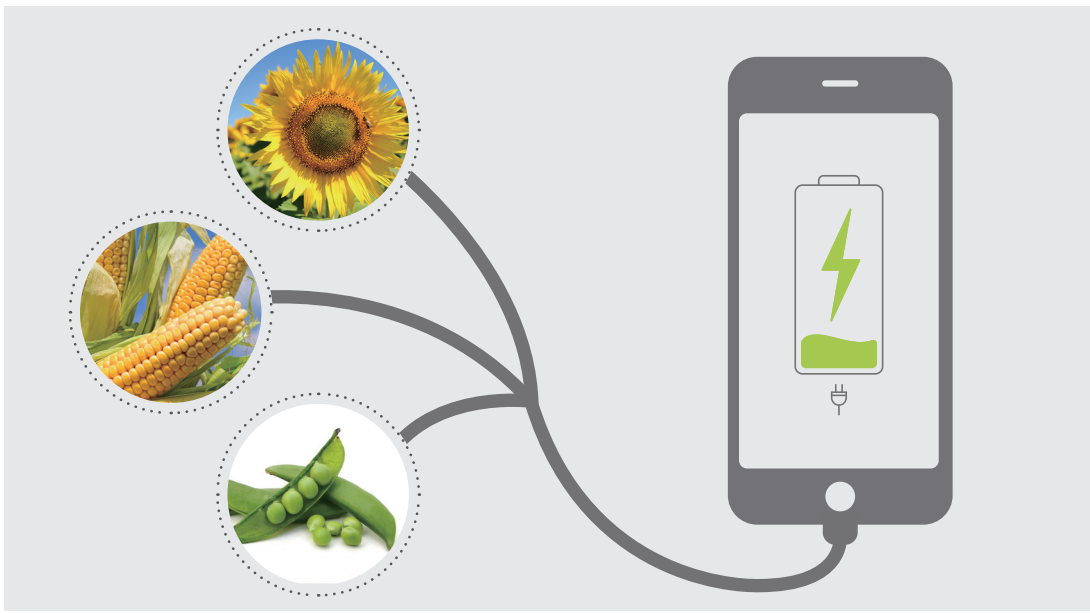
바이오에너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총칭하는 말로 바이오매스(Biomass)를 이용해 만드는 에너지를 말한다. 바이오매스란 화학 반응을 거치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유기물(식물·동물·미생물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대표적인 바이오에너지가 바로 바이오디젤(Bio-diesel)과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이다. 바이오디젤은 콩, 들깨, 옥수수, 참깨, 해바라기씨 등에서 추출한 기름을 에스터(Ester)라는 알코올 화합물로 바꿔 생산한다. 바이오에탄올은 감자, 고구마, 사탕수수 같은 녹말 작물에서 포도당을 얻은 뒤, 이를 발효시켜 만든다. 이렇게 생산한 두 에너지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두 에너지 모두 식물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만든 것이므로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의 위험이 없다. 게다가 에너지원이 고갈될 걱정이 없어 무한정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에너지를 주력 에너지로 개발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상용화된 1세대 바이오에탄올은 각종 세제 혜택이 없으면, 석유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바이오디젤도 마찬가지다. 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의 힘을 빌려야하는데, 기계를 작동시키는 데에도 에너지가 소모된다. 결국 에너지를 얻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바이오에너지를 계속 개발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전남대학교의 이원흥(바이오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현재 원유 가격이 안정된 상태이므로 경제적 측면만 고려하면 기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하지만 기존 에너지원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 비중에서 친환경 및 대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궁금한 과학 이야기

고기의 색깔이 괴기하더라도 고민 말자

드디어 돌아온 월급날, 김 기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오직 이 날만을 기다려왔다. 늘어난 통장 액수에 기분이 좋아진 김 기자는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기로 결심했다. 퇴근길 마트에서 고기 두 덩이가 든 팩을 사서 들뜬 걸음으로 집에 온 김 기자. 사온 고기를 살펴보니 이게 웬 걸? 겉으로 보이는 윗면만 선홍빛을 띄고, 나머지 고기는 모두 거무죽죽한 색을 띄는 것이 아닌가? 마트에 돌아가 환불을 받자니 이미 포장을 뜯어버렸고, 그렇다고 그냥 먹거나 버리기에는 망설여진다. 과연 거무죽죽한 색으로 변한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기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부패할 때 발생하는 특유의 악취가 나지만 않으면 섭취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고기의 갈변 현상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된다면 이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기의 색깔을 결정하는 요소는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이다. 둘 다 붉은 색을 띄는 단백질인데,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서 산소 운반을 담당하고, 미오글로빈은 근세포에 위치해 근육에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헤모글로빈은 도살 후 피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빠져나가 고기 색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고기에 남아 있는 미오글로빈의 변화에 따라 고기 색이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미오글로빈은 기본적으로 철(Fe) 성분과 산소(O^2)를 갖고 있다. 미오글로빈은 산소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3가지 상태로 나뉘는데, 각각 옥시미오글로빈, 디옥시미오글로빈, 메트미오글로빈이라고 부른다. 옥시미오글로빈은 산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미오글로빈의 기본적인 상태다. 철 성분이 산소 분자와 결합한 상태로, 옥시미오글로빈이 선홍색을 띄기 때문에 고기도 선홍빛을 띄게 된다.

디옥시미오글로빈은 옥시미오글로빈이 산소를 잃은 상태를 말한다. 주로 진공포장 등의 이유로 산소와 접촉하지 못했을 때, 옥시미오글로빈은 산소를 잃고 거무죽죽한 자적색의 색깔을 띄게 된다. 얼핏 상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 30분 정도 두면 디옥시미오글로빈이 다시 산소와 결합해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변화하고, 다시 선홍빛을 띄게 된다.

반면 메트미오글로빈은 고기가 산소에 오래 노출되어, 미오글로빈의 철 성분이 산화하며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트미오글로빈은 갈색을 띄는데, 갈변 현상의 원인이 바로 메트미오글로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기 안에 있던 지방도 같이 산화되는데, 산화된 고기는 심혈관질환에도 좋지 않으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상황이 되면 맛도 달라지고 악취도 나기 시작한다.

한편, 고기를 보관할 때, 냉장 보관했는지 냉동 보관했는지에 따라서도 고기의 맛과 질에 차이가 발생한다. 영하의 온도에 고기를 두면, 고기 속 수분이 서서히 얼면서 단백질 성분이 변하게 되고, 세포의 기능적 손실이 일어난다. 또한 냉동된 고기를 해동할 때는 동결된 수분이 근육 조직에서 분리된다. 이때 분리되는 수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육즙이다. 고기에서 빠져나오는 육즙에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물이 함유돼 있는데, 고기를 얼렸다 구우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육즙이 많이 빠져 영양적 손실이 크다. 게다가 냉동기간이 길어지면 지방이 산화되고, 고기가 건조해져 맛도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강선문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사는 "이러니 저러니해도 맛도 영양도 좋은 고기를 먹으려면 셰프가 고기를 굽는 방법을 따라 조리하는 것이 최고"라며 "강한 불로 고기를 먼저 표면을 살짝 익혀야 육즙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고, 향 역시 더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의화정

'미투'에 임하는 자세

지난 겨울 제주도에 다녀왔다. 서쪽 해안가에 머물렀는데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해변이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거센 바람이 분 다음날이면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제주도가 해류의 이동 경로에 자리한 터라, 바다 깊숙한 곳에 가라앉았던 온갖 쓰레기들이 해안가로 몰려온 탓이었다. 인간의 욕망의 잔재들이 추했고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엄청난 양이라 그것을 드러낸 바람과 파도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요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투'(#MeToo)를 보며 제주도의 쓰레기가 생각났다. 창원지방검찰청 서지현 검사가 자신이 겪은 성희롱 사건을 폭로한 이후 '나도 성폭력 희생자'라며 성폭력 가해자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문화계로 옮겨 붙은 그 불은 학계와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종교계까지 이어져, 마치 알 수 없는 힘이 대양을 뒤집어 놓은 듯 사회 곳곳에 쌓여 있던 쓰레기들이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며 2016년 강남역 사건이 보여주듯 이 문제를 고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왔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책임이 오롯이 가해자에게, 또 가해자를 용인한 사회에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 탓으로 돌리며 침묵과 수치를 강요해온 오래된 억압 기제를 깨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있다. 사회적 불의에 대한 우리사회의 도덕적 감수성 향상이라는 바탕에 엘리트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이 강요된 침묵과 죄의식을 벗어버리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 운동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억울한 가해자가 나올 가능성부터, 나아가 성폭력 가해자라고 그의 작품을 모조리 쓰레기로 볼 수 있냐는 근본적 의문까지. 숙고가 필요한 질문이지만, 점잖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발언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이 더 경계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때문이다. 변화는 늘 두려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변화를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바닷가 쓰레기가 추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함께 외치는 것이다. Me Too & With You.

김영아(교양영어교육과정) 교수

기자수첩

더 이상 침묵은 금이 아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온도계가 영하 10도 이하를 밑도는 건 예삿일이 되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렇게 혹독한 동장군마저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피워 올린 뜨거운 횃불을 막아낼 수 없었다. 지난 1월 29일에 있었던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을 시작으로, 이후 연출가 이윤택, 배우 조민기, 시인 고은 등의 성추문이 피해자들의 입을 통해 잇따라 알려지면서 미투(#MeToo)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폭로는 쭉 있어왔지만, 지금과 같이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 이들의 행동을 막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대부분 묻혔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검사가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의원이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느냐'며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증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미투 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들은 그동안 침묵하던 관행을 깨고 계속해서 저항을 이어나갔다. 이는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로 이어졌고, 가해자들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사실 '미투 운동'과 같이 침묵을 깨고 사회 부조리를 성토해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는 한때 국가 권력이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게 넘어간 장면을 목도한 바 있다. 사실 '비선실세'는 최순실 이전에도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소통령'이라 불렸던 김현철이, 노무현 정부 때는 '봉하대군' 노건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밝히고 개선하는 대신 '쉬쉬'하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고, 결국 비선 실세를 무너뜨렸다. 침묵의 금기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이쯤에서 우리는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물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말을 경솔하게 하지 말자는 맥락에서 받아들이면 이만큼 좋은 속담이 없다. 반면, 작금에 이르러 불의에 저항하는 입장에서 이 격언을 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잘못된 것을 목격했을 때 입을 굳게 다물고 모르는 척하면 편하다. 하지만 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나의 침묵으로 사회의 부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돌덩어리만도 못하다. 불의를 본 이상, 더 이상 침묵은 금이 아니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낙산에 올라

운명의 짝은 없다

연애를 안 한지 2년이 지났다. 만남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랜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짧게 끝난 게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 스스로 '매력이 없는 사람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내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운명의 짝"이라고 일컫는 상대를 만나서 깊고 길게 연애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연애가 실패할 때마다 "그 사람은 내 운명이 아니였어…"라며 합리화를 했다.

하지만 연애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혼자만의 시간은 스스로도 몰랐던 내 모습들을 발견하기에 좋은 기회였다. 그러자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결혼에 대한 생각도 점점 바뀌었다. 하지만 "연애도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게 된다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안 할 생각이야. 결혼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빨리 시집가더라", "아직 제 짝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무 극단적이야"라는 비아냥과 함께 말이다.

연애도, 결혼도 하나의 선택 과정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를 나무라기 시작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연애를 하는 것, 결혼하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 설정값에서 벗어나면 그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너무 이른 선택이라며 타이르고 가르치려 든다. 나 대신 내 인생에 불편함을 느껴주는 사람이 참 많다.

정찬희(시각영상 3)

· 삼학송 ·

기레기를 위하여

기레기, '기자'와 '쓰레기'를 절묘하게 합성한 이 신조어를 듣는 것은 요즘 세상에선 그리 어렵지 않다.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부실한 내용, 기초적인 팩트 체크조차 없이 지면에 오르내리는 온갖 이슈들과 편집국의 정치논리에 맞춰 나열되는 활자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겐 '기레기'라는 칭호마저도 과분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이런 '기레기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론'이라는 곳에 한걸음 더 다가갈 필요가 있다. 언론사의 수익은 크게 광고비와 구독료로 나뉘는데, 보통 광고비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구독료보다 높다. 특히, 종이신문의 입지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이 현상은 더욱 극심해지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뉴스'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기레기'가 탄생한다.

모든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 사업부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언론사는 각 기사의 조회 수,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의 히트(Hit) 수에 따라 광고 수익을 얻는다. 다만 광고의 히트 수 역시 조회 수와 정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회 수'는 언론사에게 있어 절대적인 지표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무언가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때는 그 이슈에 대한 기사를 얼마나 신속하게 작성해, 포털 사이트에 노출시키느냐가 조회 수를 올리는데 관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해당 기자들은 새로운 이슈가 생성되면 해당 이슈의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우겨넣은 기사를 누구보다 빠르게 타이핑해야한다. 이를 '어뷰징(Abusing) 기사'라고 하고, 이슈 선점 대열에 끼어들기 위해 남이 쓴 기사를 베껴오는 것을 '우라까이'라고 한다. 기사를 쓰기 위해 어떠한 취재도 하지 않고, 말그대로 '기사를 위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작년 공동취재 건으로 한 메이저 언론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언론사 측의 배려로 사무실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중 온라인 뉴스 사업부를 견학했던 기억이 인상적으로 남았다. 그곳에는 커다란 TV 2대가 천장에 매달려있었는데, 그 TV는 실시간으로 어느 기사가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지 순위를 매겨 보여주고 있었고, 기자들은 끊임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당시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한창 이슈가 되고 있었으므로, 조회 수 1위에는 응당 관련 기사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기사는 다름 아닌 '반전 몸매' 어쩌구로 시작하는 어떤 모델의 비키니 화보 기사였다.

자본주의의 가증스러운 성적표를 머리 위에 이고 영혼 없이 기사를 써내는 기자들의 모습이라니, 그중 대다수는 언론사에 정식으로 입사한 정기자가 아니라 그저 인턴기자에 불과하다. 물론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를 져버린 '기레기'는 존재한다. 하지만 '기자다운 기자'가 되지 못한 채, 언론사의 '소모품'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기레기'라고 통칭하는 것이 정말로 정당할까. 그날 밤, 씁쓸한 술을 목으로 넘기며 속으로 건배를 했다. 기레기를 위하여.

이주형 편집국장

낙산만평

김수현(인문 2)



2018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ROTC) 59·60기 후보생모집안내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지원자격
● 연 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9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60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 간 : 2018년 3월 1일 ~ 4월 4일
● 방 법 : 인터넷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 정
- 1차 필기고사 : 4. 7.(토), 합격자 발표 : 4. 26.(목)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 4. 28.(토) ~ 5. 25.(금), 합격자 발표 : 6. 20.(수)
-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 : 5. 14.(월) ~ 7. 27.(금), 최종 합격자 발표 : 8. 17.(금)
● 문의처 : 육군학생군사학교(043)830 - 6031, 지원대학 학군단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한성대신문사 45기 수습기자 모집

한성을 비추는 한성인의 언론, 한성대신문사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요활동

- 아이템 기획안 작성
- 아이템 회의
- 레이아웃 디자인
- 취재원 컨택
- 인터뷰
- 사진 촬영
- 기사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작업
- 신문 배부
- 블로그 기사 업로드
- 페이스북 카드뉴스 제작 및 업로드
- 취재처 신문 발송
- 평가 회의

활동혜택

- 활동비 및 원고료 지급
- 학기당 비교과 100pt
- MT·워크숍 등 단합행사
- 3食(회식 · 배달음식 · 간식)
- 유명인과의 만남
- 언론사 ·잡지사 스펙
- 개인 책상 및 PC 제공
- 개인 사물함 제공
- 명함 및 기자증 지급
- 복합기 무료 사용
- 교육연수 등 프로그램 지원
- 퇴임 시 금반지 증정

모집대상

본교 재학생(전공 무관)

모집기간

2월 19일(월)~3월 16일(금)

지원방법

- 한성대신문사(우촌관 중문 기업은행 건물 2층)에 직접 방문해 지원서를 받거나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sungnews)에서 다운
- 지원서는 직접 또는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문의사항

- **TEL. 02)760-4186**
- **이주형 편집국장 010-9286-7531**